

<지원 동기>

저는 배를 탈 것이라면 최소 일등 항해사까지 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장기 승선을 계획한다면 앞으로 2050 NET ZERO와 발자취를 함께하는 LNG 선박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기에 동지 해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승선 경험은 학교 실습선을 외에는 외부 실습 7개월이 전부이기에 이러한 적은 경험의 학생이 장기 승선을 장담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의 실습 동안 저는 외로움을 잘 타지 않고 반복되는 생활에도 새로운 재미를 찾는 저의 특성과 선박이 잘 맞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박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스스로가 발전함을 느끼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즐거웠고, 배를 꾸준히 타서 시니어 사관으로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나중에 일등 항해사가 될 것을 고려하여 미리 2급 면장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마음가짐은 동지 해운에서 빛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귀사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취업박람회 당시에 동지 해운에 방문했고 입사하면 LNG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수입도 얻고, 또 그와 동시에 배에 오래 승선하여 전문가로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느껴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자 항해사를 뽑지 않는다는 말씀에도 한 번이라도 면접을 보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히 '항해사'가 아니라 한 명의 LNG 전문가로서 육상과 해상을 넘나드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며 이렇게 동지 해운의 발자취를 함께하고자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나의 특별한 경험과 어학 능력의 발전 가능성>

저는 PCTC에서 한국인, 필리핀 사람들과 약 7개월 실습했습니다. 꽤 긴 기간 배를 타면서 느낀 점은 외국인 선원과 유연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능통해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등 항해사님께서 USCG에 칭찬받을 정도로 영어에 능통하셨고 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데도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배를 타는데 유창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을 느꼈고 언어 공부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최소한의 단어로 소통했던 필리핀 부원들에게 조금씩 문장 단위로 말을 걸었고, 배에서 받은 약간의 와이파이로 매일 영어 회화 YOUTUBE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실습했던 외국계 회사는 모든 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기에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저의 노력은 4학년 때 필리핀으로 일주일의 교류 여행에서 빛을 발합니다.

실습 일 년 후 여름방학, 저는 필리핀으로 일주일 동아리 VISION TRIP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필리핀 상선사관학교 PMMA, MAAP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의 덥고 습한 환경, 평소에 듣던 영어보다 훨씬 빠른 말투 그리고 같은 해사 대학임에도 전혀 다른 문화에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망했지만, 서투르더라도 계속 말을 걸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학생들과 교류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나중에 함께 승선할 '선원'의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후에는 원주민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했고, 저는 저의 스피킹 실력이 한층 높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필리핀 여행을 기점으로 저는 잠깐 멈추었던 TOEIC을 다시 시작했고,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점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해 READING 점수를 더 높이고자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하여 결국 마지막 토익 시험에서 950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소의 경험을 통해 저에게 사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동지 해운에 입사한다면 제 특유의 꾸준한 성실함으로 항상 노력하여 저의 장점은 개발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항해사가 될 것입니다.